'You are the Weather, Part 2'

로니 혼, 기억은 다르게 적힌다

"선배, 저 로니 혼 정말 좋아해요. 전시 티켓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한 패션 에디터 후배가 로니 혼 기사를 진행한다니 호들갑을 떨었다. "국제갤러리에서 하는 전시니까 그냥 가서 보면 돼. 마음에 드는 작품 있으면 하나 사고. 물론 그럴 돈은 없겠지만…. 참,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는 알지?" "네?" "음, 미술관은 티켓을 사서 전시를 봐야 하지만 작품을 팔지는 않고 갤러리는 작품을 팔려고 전시하는 공간이야. 그러니 입장료를 낼 필요가 없지." "그렇구나. 아무튼 전에 출장 갔다가 우연히 작품을 본 적 있는데 같은 듯 다른 그 느낌이 가슴에 팍 꽂히던데요." 미술관과 갤러리도 구분 못할 정도로 미술에 문외한이었지만 그는 로니 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맞아. 로니 혼 작품이 쌍으로 이루어졌거나 중복되는 조형물이 대부분이야. 몇초 사이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들을 쭉 모아놓고 보여주는 작품도 있고."

로니 혼은 시각적 경험과 기억의 잔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원적 구조를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그녀는 변화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지각과 시각적 경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한다. 물, 빛, 날씨 등에 내재되어 있는 끊임없는 흐름을 포착함으로써 장소와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시된 작품 중 모양은 같지만 색깔은 조금 다른 연두색 원통, 하늘색 직육면체 유리 조형물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 물 덩어리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미묘한 색감의 차이가 대지와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 친밀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메운다.

'개들을 겁먹게 하는 햇빛의 변화들', '하나의 색감으로 변질된 무지개', '기억할 수 없는 대양들의 소금 혹은 별에서 온 빛을 머금고 있는 돌을 다루어왔기라도 하듯, 나는 내적으로 무한함에 이르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봉인된 편지봉투를 만지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등 작품의 제목도 특이하다. 관객들에게 특정한 해석을 강요하는 듯하지만 탁월하게 작품의성격을 드러내는제목이다. 독특한 제목과 관객 개개인의 경험이 더해지면 본인과 맞는 의미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미이기도 하다.

사진 작품인 'You are the Weather, Part 2'도 흥미롭다. 아이슬란드의 온천과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는 한 여성을 촬영한 100장의사진인데 긴 띠처럼 액자가 설치되어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여성의 미묘한 표정을 기록함으로써 관객은 사진 속 여성의 시선에 둘러싸인 듯한 착각에 휩싸인다. "이 작품이 촬영되고 전시되는 방식으로 인해 관객은 시선의 의해 응시되는 관음증적상황에놓인다. 당신은당신을 주시하는 한 여성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다. 특정 환경 속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움직임뿐만 아니라 관객 모두의 심리적 풍경까지 포착해내고 있는것이다.

로니 혼이 작품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본인과 타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사회적 위치와 인간적 관계를 제외하면 남는 '나'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글/김진호 사진/국제갤러리

EXHIBITION

한주은 도예전
7월 12일까지 갤러리두에서
하주은의 도예 작품이 전시된다.

MAGICAL MOMENT
7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비나미술관에서 조던 매터
사진전이 개최된다.

만물상-사물에서 존재로
서울시립
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
8월 1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순회전이 열린다.

전시의 즐거움
아트선재센터에서 7월 13일까지
신진 기획자 공모전 당선자
노경민, 문지윤의
공동 기획전이 열린다.

'Such 4'

'Sometimes I Think I Resemble Myself too Much. I Have Always Been Someone Else…'